

# 싱그러운 초록맛이... 예술로 진화한 '반려식물'

"입체적으로 종이를 붙인 작품이 가장 인상 깊고 반려식물이라는 주제 자체가 멋진 것 같다. 식물을 오랜만에 보니 좋다."

반려식물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전시실 벽면에 부착된 한 어린이의 짧은 감상 글이다. 전시장을 둘러보니 종이를 오려 식물을 구현한 작품도 눈에 띈다.

신세계 백화점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반려식물' 전(오는 22일까지). 전시실에 들어서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전시실 벽면을 채운 푸른 식물의 그림이 마치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반려식물을 점차 많이 키우는 추세이지만, 이를 토대로 전시를 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사전적 의미의 반려식물(伴侶植物)은 "사람이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일컫는다. 가까이 두고 기른다는 것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 모든 생명은 애정의 손길을 건네는 만큼, 마음을 주는

만큼 건강하게 자라기 마련이다.

이번 전시에는 권예솔, 아일렛솔, 전유리, 전태형, 정인혜, 조은솔 등 모두 5명의 작가가 출품했다. 장르도 다양하다. 회화를 비롯해 설치, 페이퍼 콜라주, 디지털 프린트 등 다채로운 기법의 작품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붙든다.

김수영 큐레이터는 "반려식물은 거창한 게 아니라 주택의 작은 정원에서 자라는 식물에서부터 아파트 베란다 또는 머리맡에 둔 작은 화분에 심어진 식물도 해당한다"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반려식물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한구절의 시처럼 반려동물은 때에 따라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어야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해준다"고 덧붙였다.

전시실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작품은 조은솔 작가의 '덩어리'이다. 설치, 시각미디어로 이루어진

신세계 백화점 '반려식물' 전

2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권예솔·아일렛솔 등 5명 작가 참여

회화·설치 등 다양한 기법 작품 전시

작품은 천장에 매달린 것이 아닌 천장에 뿌리를 내리고 땅을 향해 키를 높이는 듯한 형상이다. 작품명처럼 '덩어리'가 주는 생명의 풍요로움, 척박한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강인함을 느낄 수 있다.

한지 위에 그린 한국화를 선보이고 있는 권예솔 작가의 '누군가의 정원'을 보고 있노라면 즐거워진다. 식물들이 스스로 감정을 발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미소를 짓게 한다. 경쾌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



권예솔의 '누군가의 정원'



신세계갤러리에서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반려식물'전은 우리들 곁에 있는 식물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담은 전시다.

하며, 식물들은 저마다 환희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식물들이 펼치는 작은 음악회에 초대받은 느낌을 받는다.

페이퍼 콜라주 작품인 전유리의 '코르딜리네 레드비치'도 이색적이다. 작가는 곁에 두고 싶은 식물들을 종이 위에 그리고 오려 붙였다. 작품은 강인하면서도 여리고, 활달하면서도 섬세한 양가적인 분위기를 피워낸다. 지금까지 출품한 '꽃을 그리는 시간', '나의 소중한 꽃에게' 등은 작가의 식물에 대한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가는 노트에서 "저에게 반려식물은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가장 친근하기도 해요"라며 "실제 식물이든 종이로 이루어진 식물이든 식물과 함께

일 때 가장 행복한 것은 변함없어요"라고 말한다.

일러스트와 판화작업을 하는 전태형 작가의 'Plant 08'은 식물을 간략화하면서 담백하게 표현했다. 선인장 같기도 한 작품은 건강한 생명력을 매개로 보는 이에게 힐링과 위안을 선사한다.

전시를 관람하고 나오면서 벽면에 붙은 짧은 감상기를 다시 본다. 맞춤형에 눈에 들어오는 문구를 잠시 음미한다.

"아직 반려식물을 키울 자신이 없어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식물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겨울의 끝에 싱그러운 초록을 맞이 해서 행복했습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한민국 연극제 광주 대표 진출작 '하녀들' 만난다

연극문화공동체DIC

19~20일, 26~27일 공연일번지

'클레르'와 '솔랑주' 두 하녀는 '마담'이 외출한 사이 각각 마담과 하녀가 되어 보는 연극 놀이를 한다. 이들은 지배 계급이던 마담에 대해 질투와 선망이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갔는데, 그런 와중 한 줄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마담을 죽이는 하녀들의 모습을 담은 놀이를 하는 것'이다.

어느날 하녀들은 자신의 거짓 진술로 감옥에 있던 마담의 애인 '무수'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위기를 느낀 이들은 '연극 놀이'가 아니라 실제로 마담을 죽이기 위해 수상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에 광주를 대표해 진출하는 연극문화공동체DIC의 작품 '하녀들'이 오는 19~20일, 26~27일 소극장 공연일번지에서 펼쳐진다.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

'하녀들'은 작가 장 주네가 쓴 희곡을 각색한 작품이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파팽 자매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했는데, 이때 발표된 문학작품과 비평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하녀들'이다. 파팽 자매 사건은 1933년 2월 프랑스 제3공화국 르망에



연극 '하녀들' 중 '하녀들의 대화' 장면.

<연극문화공동체 DIC 제공>

서 하녀 자매가 주인 모녀를 살해한 사건으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 시놉시스 기획 단계에 참고했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천국의 문 앞에서 증오심을 버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행복할 줄 아세요? 천당까지라도 쫓아가 복수할 거예요" 등 작중 명대사들은 문학적이기도 극적이기도 하다. 강인영, 이현숙, 이효선 배우 등이 출연해 예정.

정문의 연출가는 "작품 속에서 억압의 상징인 '마담'을 죽이고 하녀들이 지배와 종속 관계를 전복시키는 과정은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지배와 통제의 분노 사이에서 우리 모두 '마담'을 품고 있는 '하녀들'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환기한다"고 말했다. 관람료 2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지역 문학의 역사성과 한계 조명

광주대 문창과-한국문예창작학회, 20일 전국 학술대회

광주와 전남은 예로부터 문향(文鄕)이라 불릴 만큼 가라성 같은 문인들이 많이 배출했다. 또한 향토성과 시대성, 문학성 등을 담은 뛰어난 명작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언제부터가 지역 문학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소멸과 맞물리는 데다 문학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오늘날 문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지역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역문학의 현주소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전국 학술대회가 열린다.

오는 20일(오후 1시)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5층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주제는 '문예창작과 로컬리티(1)-광주·전남 지역 문학의 역사성과 한계'.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대(총장 김동진) 문예창작과와 한국문예창작학회(회장 신수정)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정양

주)가 후원한다. 학술대회는 모두 3부로 진행된다.

1부 '광주에서 문예창작하기'라는 주제로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이자 소설가인 이기호 교수,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비평가인 김형중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문학의 역사성'을 주제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정양주 시인 및 황형철 시인, 안오일 작가, 김동하 작가 등이 참여하는 좌담이 진행된 다.

3부에서는 광주대 김중일 교수의 '2000년대 서정시의 전개와 도시 표상' 등 6편의 연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동진 총장은 "그동안 중앙 중심적이던 문학 담론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으로, 한국문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 공모

5월1일까지 이메일·우편 모집

지자체 개최된 '제3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19개국 190여명 작품 350여 점이 전시됐으며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경쟁력 있는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남도는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전시·기획을 총괄할 총감독을 공개모집한다.

2025전남비엔날레는 내년 9월-10월 목포시와 진도군 등 전남 일원에서 전시를 비롯해 학술심포지엄, 국제제지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되는 총감독은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주제 및 기본계획 수립 외에도 전시 기획, 수목작가 섭외 및 전시 등을 총괄한다.

응모자격은 비엔날레의 취지와 수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예술행사 총괄 경력이 풍부한 자 등 전시 및 예술경영계 전문가다.

희망자는 전남문화재단,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서류를 5월 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총감독 선임을 위해 예술계, 전시·기획, 학계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로 선임위원회를 구성,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한



지난해 열린 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선임위원회가 전문성과 역량, 실행 계획, 창의성·차별성 등을 종합 평가 후,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시 및 기획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국제적 감각을 고루 겸비한 전문가들이 다수 응모하기를 바란다"며 "내년 국제수목비엔날레가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장애인의 날에 울려 퍼지는 재즈 선율

정기립 재즈피아니스트 독주회, 20일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 뇌병변과 지적 중복장애를 앓고 있는 정기립(여·25) 재즈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펼칠 예정이다. 이목을 끈다.

비주양상블이 오는 20일 오후 5시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여는 '정기립의 Jazz Piano with Bijou'이 그중. 공연을 기획한 정기립 양의 어머니 김은영(비주양상블 대표) 씨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견과 차별에 대한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방법 중 '음악'은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다"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공연은 '유명한 설치 왈츠'라는 원제로 알려진 '젓가락 행진곡'으로 막을 연다. 이어 영화 OST 등으로 익숙한 '언제나 몇 번이라도', '아기 쿠키의 걸음'을 비롯해 성악가 조수미의 노래이기도 한 '바

람이 머무는 날'도 레퍼토리에 있다. 피아니스트 정기립이 연주하며 드럼(윤영훈), 베이스(한수정) 협연.

정기립이 리더로 있는 비주양상블도 출연해 모차르트 '황금별', 뮤지컬 '맘마미아' 중 'Thank You For The Music'을 들려줄 예정이다. 비주양상블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2019년 창단했으며 제 10회 광주 장애인 문화예술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가은(플루트), 박정환(보컬) 등이 활동 중.

이 밖에도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번',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을 들려준다. 가수 윤하가 16살의 나이에 발표했던 노래 '혜성'과 유명한 재즈곡 'Fly me to the moon' 등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피아니스트 정기립은 "이번 연주회가 '음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연주자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한



SK이노베이션 갈라 콘서트에서 '티 땀과 파라 바 이올린'을 연주하는 정기립. <비주양상블 제공>

다"고 했다.

한편 피아니스트 정기립은 광신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재즈 모자이크 앙상블'과의 만남으로 재즈 피아노에 입문했다. 전국 장애인 음악 콩쿠르(동상), 세광피아노 콩쿠르(1등상), 광주 장애인 문화예술제(교육감상) 등 입상했으며 현재 ROND 앙상블 등에서 활동 중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